

기적의 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 ~ 31절>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절체정명의 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셨던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과정을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일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기적으로부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분께서 하신 일로 시선을 옮겨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홍해 같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 일상으로 바꾸어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첫 여정에서부터 그들은 걸었고, 또 걸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걸어서 갈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역시 새로운 무엇인가가 아니고, 미디안 땅에서 양 떼를 돌보던 때도 들고 있었고,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을 일으킬 때도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지금껏 해 왔던 대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 앞에 보이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홍해는 그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홍해일 테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마른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순간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2.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21] ...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 [29] ...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는, **밤새도록 하신 것이 동풍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어두컴컴했던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정과정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 있으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이 갈라져 있는 것을 봐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신뢰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물이 다시 합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신뢰할 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과도 같은 일을 하셔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걸지만, 반복되는 이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직접 하였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깨닫는 감각을 주소서.
2. 하나님이 미리 이루어주신 일을, 신뢰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